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학평론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나, 건강한 민주 시민의 힘으로 마침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앙 철학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즉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이 격언은 단순히 고전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고 유지되는지를 극명하게 증명해 보였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예상치 못한 파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12·3 내란 사태는 바로 그러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사회 전반에 깊은 불신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처럼, 무책임한 행위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 시기는 국민

‘사필귀정’이 가르쳐 준 역사적 교훈

에게 큰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또 사회 곳곳에서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란 걸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으며, 헌법재판소는 급기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위대한 승리였다. 현대 사회에서 사필귀정은 더 이상의 초월적인 힘에 의한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부당함에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구현되는 현실적인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무너졌던 민생과 경제, 국격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복구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의 기대감이

다시금 고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모든 과정은 사필귀정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일이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법과 제도의 작용을 통해 결국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가진 자정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상징하며, 불의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결국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12·3 내란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지도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재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줬다.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은 단순히 고사성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은 곧 시민 주권의 실현이자, 법치주의의 확립, 아울러 투명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역시, 우리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 앞으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치칼럼



김 병 도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민주권 실현의 국정 철학’을 지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NS를 통해서 매일 ‘대국민 보고’를 하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이다. 분권화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 수 없다. 국도를 분권해야 한다. 국도를 분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와 전망

한다는 말은 지방을 자치 분권 체제로 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조세·재정·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혀 왔다. 더불어 “모두 함께 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5극 3축’ 전략,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구체적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해왔다.

“비수도권 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임명해야 한다”며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총괄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이 대통령은 “국

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분권형 개헌의 정치적 합의,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과 조세권 이양에 따른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국토의 민주화, 즉 분권화가 이뤄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과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오고 있다.

2025년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다”라고 언급했고, 과거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이다. 분권화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 수 없다. 국토를 분권해야 한다”라고 천명해 왔다.

오랜 시간 분권과 균형은 이론적 담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주권정부에서 ‘분권과 균형’은 벌써 뜨겁다. 취임 후, 울산과 광주를 방문하면서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론이 아닌 실체라고 확인한다. 전국 어디에서 살든 사려나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社說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명예회복 위령사업 급하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광주 일대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봉행됐다. 광주북구가족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장재성기념사업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광주시 유족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또 제주 4·3 희생자, 여순사건 유족회 등도 참석해 가족을 잃은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광주 지역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광산군 극락면 불공고개), 양산동 본촌산단(광산군 지산면 장고봉 고개) 인근, 장동동 도동고개(석곡면 도동고개)로 4천명 정도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본격 조사는 2000년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시작했다.

과거사위는 누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진상개시 결정을 내리는 등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존재를 망각한 역사적 범죄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

해 증대하다. 기본권인 생명권을 경시했다.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했다.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됐다.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다.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명예 회복 및 피해 보상, 위령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날 광주지역 행사 참가자들은 75년 만의 추모에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을 전했다. 너무나도 늦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도 이제서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북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살 장소마다 위령비 설치를 마쳤다.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총칼에 쓰러졌다. 시신의 행방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적이고 무법적이었지만 책임 소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은 부모와 형제, 자식들에겐 연좌제의 굴레가 씌워졌다. 공포로 밤낮을 지새우며 땀띠가 나설 수도 없었다. 아직도 미신고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말 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 조치가 절실하다.

올해 장마 끝...지금도 찜통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달 20일 시작된 장마가 끝난 것으로 판정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잡으며 정체전선이 일찍 북상한 때문이다. 종로 시기는 평년보다 23일 빠른데, 이는 통계 분석을 시작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이른다. 6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9도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2.7도)보다 0.2도 높았다. 무덥고 습하다. 폭폭 찌는 찜통이다. 저녁에도 잠 못 이루는 열대야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극한 더위가 연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전역이 30도 이상으로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자체는 빨라진 폭염에 비상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보호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4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 유형의 민간대상자를 지정하고, 시민 건강을 지킨다. 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일일 건강 확인과 냉방용품이 지원되며, 농업인·외국인근로자·건설노동자·폐지수집자에게는 예방키트와 안전선풍기 쿠폰 등을

제공한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축산·공사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무더위쉼터는 1천588개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경로당 9천275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쉼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원사가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를 살피고, 재난 도우미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인간힘을 쏟아보고 있다.

가뭄이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염까지 덮쳐 시민들의 주름이 깊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기 진작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주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일상적인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자에게는 이상기후도 가혹한 법이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쬓고 있다. 갈수록 열기가 축적되고 있다. 제강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묵어는 詩

공자를 만난 아침

명인숙



귀가 순해지는 아침이라 귀땀하며
나를 깨웠다
좀 더 순해져야 한다는 건
오늘 아침 공자를 만날 때였다

다스리지 못한 내면의 소란과
흔들리지 말자는 문장 속에서
공자의 마음을 읽어 본다

소문만 무성했던 젊은 날의 책장을 덮고
홀연히 떠나버린 공자를 다시 불러본다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
仁을 거울 앞에 세우고
오늘의 신문 문자로 나를 뽀뽀 지워
야겠다.
(시집 '문득 침표를 찍고 싶을 때', 상상인, 2025)

[시의 눈]

삶의 연료에서 이순의 연대는 주춤거림, 머뭇거림을 벗는 열린 구역이다. 이쯤에 이르면 말과 소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흥분과 성별을 제압한다.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내적 성숙이 자리 잡는 철학의 연대이기에 가능하다. 귀가 좀 더 순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자기경신과 자아성찰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천지의 이치에 막힘이 없고 들는 대로 이해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다. 관용의 눈을 갖춰 놓은 수용력에 이르기까지 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심신의 근육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흔들리지 말자’ 이 문장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매력을 내뿜는다. 세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성숙, 혹은 발효, 혹은 관조의 거울 속으로 들어서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에 다름나기 때문이다. 사람다움, 그것은 니체체의 자유의지, 혹은 초인과 연결되어 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창조하는, 자신에게 해부의 메스를 들이밀 줄 아는 용기를 전제로 한 키워드이다. 아니면 하이데커의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길 위에서 불안을 결단으로 바꿀 깨달음과 손잡는 행위이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 뿌리한다. 사물의 이치 또한 하늘에서 나온 것.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점점, 거기에 인(仁)이 있지 않겠는가. <윤성현·시인>

독자투고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영화 제작이나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기술을 이용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가짜 금융앱을 제작하거나 앱 실행 시마다 변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안 솔루션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피해자를 시각적으로 속이는 딥페이크, 목소리 합성 기술로 청각을 속이는 딥보이스 피싱 공격 등 악용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일례로, SNS에 올린 영상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그 인물

AI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한 피싱 주의

의 음성을 딥보이스 기술로 합성해 하나의 영상물로 제작한다. 이후 해당 인물이 직접 보낸 것처럼 위조한 메시지를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딥페이크 피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의심스러운 요청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실제 본인과 직접 통화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암호구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왔을 때, 이를 통해 진짜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상이나 음성을 확인할 때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 정보 공유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인의 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프로필 사진, 영상, 음성 등은 딥페이크·딥보이스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소스가 되므로, 공개 계정에서는 영상 공유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 발전과 함께 주의해야 할 범죄도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딥페이크·딥보이스 피싱에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과 철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수연·장흥경찰서>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